

AUTHOR 유태화

TITLE 사회참여를 위한 개혁신학의 세계관적 근거모색
-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중심으로 -

IN 개혁논총 Korea Reformed Journal (KRJ)
vol.8 (2008): 161-193

KRIJ B(2008) 161-193

사회 참여를 위한 개혁신학의 세계관적 근거 모색

-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중심으로 -

유태화

백석대학교, 교의학 교수

1 들어가는 글

사회 참여 문제는 과거와는 다른 맥락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회의 사회 참여라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시기를 보수적인 한국 장로교회는 사실상 눈을 감고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사회 참여를 선언하는 것이 반정부지향적인 이데올로기화된 투쟁과 어느 정도 연루되는 것을 의미했다면, 오늘날의 사회 참여는 교회적인 차원에서라도 활성화되어 가는 실정이고 또한 그 시대에 있었던 민감한 이데올로기적 사안과 연루되지 않는 변화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시대의 보수적인 교회가 사회 참여에 관심을 기울이는 보다 실질적인 동기는, 물론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점차 뚜렷하게 노정되는 교회의 수적 성장의 정체와 사회로부터의 냉혹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교회적인 상황 때문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듣기에 다소 거북할 수도 있겠으나 실기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논의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수직인 하강기에 접어든 한국교회의 부흥의 전기 마련이라는 다소 공색한 전망을 넘어서는 복음의 분명하고 명쾌한 요구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있었던 정치적 인압제와 경제적인 착취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서, 과거의 문제와 정확히 패를 같이 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사회참여가 필연적인 과제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육, 예술, 스포츠, 여가 생활, 학문 활동과 같은 제반의 영역에서 기독교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기독교적인 정당 활동의 여부라든지 혹은 세속화된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기독교적인 공공교육의 모색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거론해야 하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사회 참여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중심적인 삶의 패러다임을 전지함으로써, 교회가 사회로부터 게토화된 그런 구조에 정확히 반대되는 것으로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장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삶의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교회와 사회적 삶의 전반을 포괄하는 신학적인 혹은 세계관적인 전망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축으로 논의의 핵심에 도달하려고 한다. 교회가 게토화되어 교회중심주의를 표방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 핵심에 복음에 대한 이해, 즉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복음의 중심을 파고들어 그것이 교회와 삶의 전반과 관련하여 어떤 전망을 우리에게 열어주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신학적인 윤곽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예술, 학문 활동, 스포츠 및 여가 활동과 같은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보다 진전된, 다른 말로, 구체성을 가진 별도의 논의들이 심도 있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영역에

관심을 제한하고, 개혁신학이 지향하는 세계관적인 기초로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전망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2 사회 참여와 관련한 복음주의와 개혁신학의 출발점의 차이

2.1 복음주의의 관점

1970년대 들어서면서 선교에 대한 이해가 그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갖게 되는데, 그런 경향을 반영하여 로잔에서 열렸던 복음주의 대성회인 세계전도 국제대회에 참가한 150여개의 나라에서 모여든 그리스도인과 신학자들이 작성한 신앙과 신학의 선언문인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²에서 복음주의

1. 유태화, 『삼위일체론적 성령론』(서울: 도서출판 대서, 2006), 355 이하에서 개괄적으로 논의한 것을 보완 및 확장한다.

2. 조종남 박사가 번역한 스위스 로잔에서 1974. 7. 16-25에 개최된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에서 150여 개국에서 온 3,700여명이 합의하고 서명한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 본문을 사용하며, 이하 로잔언약으로 표기하며, 내용은 맞춤법을 교정하여 인용한다. 로잔언약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머리말

1. 하나님의 목적
2. 성경의 권위와 능력
3.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4. 전도의 본질
5.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
6. 교회와 전도
7. 전도를 위한 협력
8. 교회와 선교 협동
9. 복음 전도의 긴박성
10. 전도와 문화
11. 교육과 지도자 양성
12. 영적 싸움
13. 자유와 핍박
14. 성령의 능력
15. 그리스도의 재림

의 사회 참여에 대한 관점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자연스레 그 신앙고백문서의 내용에 우리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로잔언약의 목차 1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목적 부분을 전체로 인용하며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전반적인 이해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창조자이시며 주되신 영원한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신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한다. 하나님은 그의 뜻의 목적에 따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불러내시며 다시금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어 그의 나라의 확장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부름 받은 백성들을 그의 종들과 증인들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왕왕 세상과 동화되든가 혹은 절연됨으로 우리의 소명을 부인하고 우리의 선교 사명에 실패하였음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에 고백한다. 그러나 복음은 비록 질그릇에 담겨 있었을 지라도 귀중한 보화임을 기뻐하며 이 보화를 성령의 능력으로 널리 알리게 하는 과업에 우리는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려고 한다.³

우선,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주되신 영원한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은 그의 뜻의 목적에 따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작한다. 세계의 창조와 섭리를 언급하는 셈이다. 하지만, 강조점이 끝마로, 한 백성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직행한다. 물론, 비록 이 문서의 부피나 혹은 성격이 상세한 신학적 이해를 반영하는데 있지 않고, 다만 핵심적인 내용을 반영하는데 있지만, 그 사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서는 '아주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적이며 우선적인 관심사'라는 생각을 그 배경에 깔고 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강조점이 자연스럽게 부각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사실,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개혁신학도 이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을 조금 더 진전시키면, 복음주의의 신학의 전체적인 관심사가 구속(redemption)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또한 파악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복음주의는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하여 일체의 것을 파악한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문서의 <전도의 본질>이란 항목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전도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인데 기쁜 소식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시어 통치하시는 주로서 그는 지금도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죄와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은사를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전도에 있어서 세계 속의 그리스도인의 현존은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이해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도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전도 그 자체는 역사적 성서적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로서 선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도록 설득하는 일이다.⁴

이런 이해의 기저에 반영되어 있는 세계관적인 기초는 타락이다. 타락의 깊은 현실에서 복음전도의 필연적인 요청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물론 타락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타락 이전의 상태, 즉 창조의 순전성의 상태(Status integrans)에 대한 이해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로잔언약 목차 1에서 "우리는 세계의 창조자이시며 주되신 영원한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신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한다. 하나님은 그의 뜻의 목적에 따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말로 표현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진술은 발견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역시 창조신학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설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복음주의가 의미하는 창조신학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단초는 이 신앙고백문서에 주어져 있다. 그것이 신앙고백문서 차제 5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

>이라는 항목이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모든 사람의 창조자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사회 어디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려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권범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빛,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타고난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사람은 서로 존경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며 누구나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이점 우리는 등한시하여 왔고, 또는 왕왕 전도와 사회참여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데 대하여 참회한다.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니며, 사회행동이 곧 전도는 아니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정치적인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 의무의 두 가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표리, 우리의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필수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종류의 소외와 압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부정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것을 공박하는 일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의 나라에 태어난다(중생함을 받는다). 따라서 그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그 나라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전파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⁵

복음주의도 그리스도인의 사회 및 정치적인 책임에 대하여 뚜렷한 소리를 낸다. 그리고 복음주의의 관심사가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사회적인 책임의 출발점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빛, 문화, 계급, 성 또

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타고난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사람은 서로 존경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며 누구나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되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기독교적인 신앙고백에 근거되며,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의 대상이 뚜렷하게 인간론 중심적이라는 것이 특징적이다. 환언하여, 구속이라는 중심에서 사회적 책임이 언급된다는 것이다. 미상불 성경이 일면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단순하고 일방적이지 않다. 말인즉, 구속사건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의 중심이며, 역사의 중심이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구조를 전제한다. 따라서, 후술하겠지만, 구속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삶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창조(creation)에서 완성(consummation)에 이르는 명쾌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는 성경이 바로 그런 토대에서 구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기독교와 인간론에만 근거시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피상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창조신학적인 기원을 뒤로 물러고 기독교적 기초, 즉 구속을 전방에 위치시키거나 혹은 창조신학과 구속을 긴밀하게 연결 짓지 않고 구속을 창조 위에 둘 때, 더 나아가서 그 적용의 범주를 인간론적으로만 제한할 때, 몇 가지 필연적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이 구체적인 기초와 방향을 상실한 채 단순히 상황에 응전하는 방식으로, 혹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말인즉, 그리스도인이 총체적인 복음중거의 과정에서 대면하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기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상황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자칫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그때그때의 상황적인 판단에 내맡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어떤 기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또 다른 혼란에 봉착할 수 있다.

물론 기독교적 중심을 견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앙함으로써 신앙인

들의 실체가 된 그리스도의 왕국 윤리(Kingdom ethics)를 기준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⁶ 그리스도의 왕국의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제시하는 하나의 전기로서 칼라디아서 3:28 -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 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왕국 윤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 윤리의 핵심은 평등 정신을 반영하는 반면에, 창조 윤리는 위계질서적이어서 왕국 윤리와 창조 윤리는 서로 다른 질서에 속할 뿐만 아니라, 전자가 후자를 능가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가 하나인 것이 과연 구속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주어진 삶의 기준인지 아니면, 창조 때부터 주어진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달리 말하여, 과연,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승인하셨는가? 혹은 남녀성의 구별을 넘어 성차별을 창조질서 안에 두셨는가? 빈의 빈 부익부의 사회구조를 생각하셨는가? 미상불 회년법의 구속사적인 진전이 라든지, 혹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구속의 질서에 속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윤리와 창조질서에 속하는 창조의 윤리가 몇몇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연속적이지는 여전히 의문에 속한다는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음주의의 신학적 패러다임이 창조신학보다는 복음을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의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모호한 영역을 남겨둔다는 것이다. 더 나은 방법은 구속을 창조의 회복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이런 관점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간적인 특징만을 고려하는 것도 불충분한 모습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속사건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그 자체의

구속과도 연관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한다"는 헤르만 바빙크의 신화적인 입장을 따르는 윌터스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유의하다.

구원이 창조 이상의 그 무엇을 가져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조보다 덜 가져오지도 않는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창조계 전체이며 그 범위는 실로 우주적이다.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자기와 화목케(골 1:20) 하시려고 했다.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 '만물은 그가 화해라는 개념을 철회하게 혹은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 드러낸다. 사도가 인간을 넘어서는 범위를 염두에 두면서도 이 문맥에서 화목케 한다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용례는 우리가 타락의 범위에 관하여 배웠던 바를 확정해준다. 즉 모든 사물이 인류의 반란과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 태도에 연루되었는데, 그들의 하나님과의 긴장 관계는 해소되어야 하며, 다시금 그분과 화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속의 범위는 타락의 범위만큼 넓고 전 창조계를 포괄한다.⁷

성경이 구속을 말할 때 기독교적이고 인간본적인 관심사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복음주의의 관점이 약간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구속과 함께 창조를 동시에 취하고, 인간본적인 측면과 함께 우주본적인 측면을 동시에 취할 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발견된다.

2.2 개혁신학의 관점

개혁신학도 복음주의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공유한다. 환언하여, 개혁신학

6. Richard Longenecker, *New Testament Social Ethics for Today* (Grand Rapids: Eerdmans, 1984), 84-88; Stanley J. Grenz, *The Moral Quest: Foundations of Christian Ethics* (Downers Gr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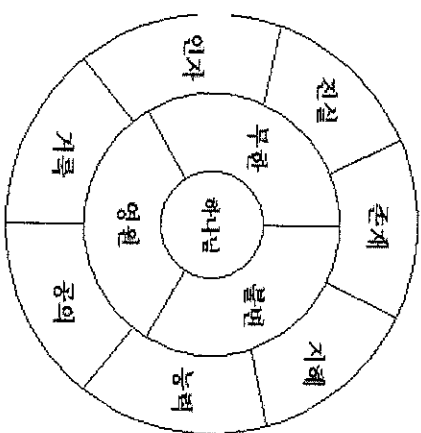
7. 안버트 윌터스 『창조, 타락, 구속, 완성마련』(서울: win 1997) 87

도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타락한 이 세상의 궁극적인 소망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전지한다. 달리 말하면, 개혁신학의 중심도 구속에 있다. 하지만, 이 구속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하나님의 포괄적인 행동과의 관계를 개혁신학은 충분히 고려한다. 구속에 앞선 하나님의 행동과 구속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행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그 유기적인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며, 바로 그 맥락에서 구속을 생각하는 것이다. 개혁신학은 이러한 확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네 개의 축을 제시하는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 그것이다. 특히 우리의 관심사인 사회 참여에 대한 개혁신학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21 주권적인 창조의 목적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전에, 개혁신학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혁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은 또한 위력 간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시는 분이어서 고독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랑의 대상을 필연적으로 갖지 않는다. 동시에 자존하시며 자족하신 분이어서 어떤 필요와 같은 것도 경험하지 않는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이 창조세계가 없어도 무한한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자족하실 수 있기에, 구태여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다. 이 점에서 개혁신학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혹은 이 세상에 대하여 무한히 자유했던 분이시다. 이 때 "자유"라는 말은 창조주와 피조물은 필연적으로 다른 존재론적인 질서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의존해야 하는데 반하여,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하여 일체 자유하신 분이시다. 창조하신 분과 창조된 피조물 사이에 현저한 질적 차이를 상정하는 것이다. 말인즉, 그는 명령하시고, 피조물은 순종한다. 그가 말씀하신

다면, 피조물은 들어야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그가 불러내시면, 피조물은 현존한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으며,⁸ 심지어 법제신론자들이 상정하는 것처럼 종말에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가 하나님 안에 거주하되, 신은 신의 방식으로 인간은 인간의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만유제신론적인 종말의 비전도 성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전자의 방식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후자의 방식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우주의 종말론적인 완성(consummation)을 통해서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극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8. 이른바 한 카이퍼의 영역주권(Souveränität in Eigen König) 이해에 있어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grens)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전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으로서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피조물과 구별된 창조주라는 사실에서 성립하는 것이다(C. Veenhof, *Souveränität in Eigen König* [Kampen: Kok, 1939], 9-12).

9. J. Molmann, *Das Kommen Gottes. Christliche Eschatologie* (Gütersloh: Chr. Kaiser/Gutersloher Verlaghaus, 1995); R. Bauckham, *God will be all in all. The Eschatology of Jürgen Moltmann* (Eichborn: T & T Clark, 1994), 100-101.

이는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거룩과 인지와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며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반면에, “피조물”은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거룩과 인지와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며 불변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하시며, 바로 이분이 창조에 선행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테초이전에는 이분밖에 달리 존재하는 분이 없었고, 동시에 그와 맞설만한 다른 존재물도 없었다. 따라서 만유를 향한 주권 선언이 가능한 것이다.

2.2.1.1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

선재한 것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용할 재료도 사실 없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창조행위를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말할 때, 단순히 어떤 선재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것은 창조이전에 선재하신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또한 반영한다. 즉, 창조주와 피조된 창조세계 사이에는 어떤 존재론적 연속성도 없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일부를 떼어내거나, 혹은 그의 존재의 일부를 취하여 창조세계를 형성하신 것이 아니다.¹⁰ 창조세계는 창조주와 어떤 존재론적 연속성도 갖지 않는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전혀 다른 질서에 속한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여,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의지의 산물이라 한다.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미리 충분히 생각하셨고,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시고, 명령을 통하여 불러내신 결과로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 요컨대,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라는 신학언설은 창조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선재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까, 더 나아가서 이 창조세계와

하나님과는 어떤 존재론적인 연속성도 없다는 사실을 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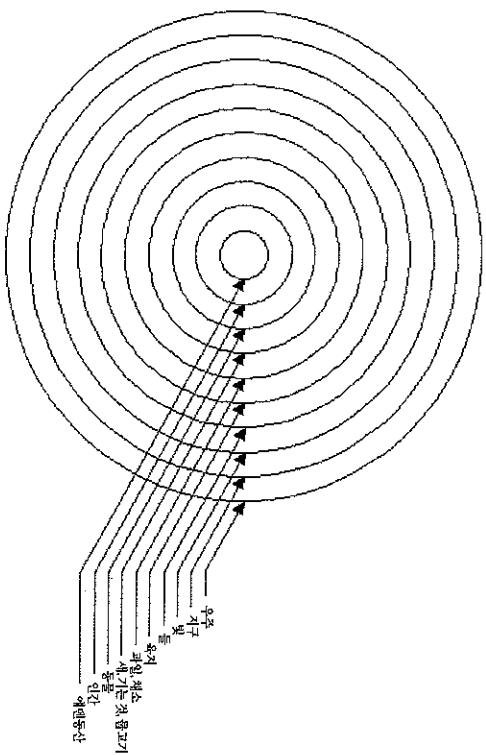
2.2.1.2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amor Dei)

그렇다면,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론적 연속성도 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가 무엇인가? 존재론적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셔야 할 어떤 필연적인 동기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가 무엇인가? 창조의 동기가 창조의 과정에 확인하게 드러난다. 창조의 진행순서를 보면, 우주의 창조(창 1:1)에서 지구의 창조(창 1:2)로 진행한다. 윌터스는 창세기 1:1의 창조를 제1의 창조라 부르며, 창세기 1:2의 창조를 제2의 창조라 부른다.¹¹ 즉, 창세기 1:2의 공허하고 혼동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것이 우주기 창조되었을 때의 지구의 상태를 의미한다.¹² 이와 같은 지구를 채우고 단장하는 것이 제2의 창조사역이다. 그런데 제2의 창조의 진행과정을 보게 되면, “빛”과 “물”과 “땅”의 구별이 선행된다. 이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세 요소가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하신 후에, 비로소 각종 아체와 과일나무를 창조하셨다. 이는 뒤이어 창조될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 동물들의 양식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달에 동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신다. 창조의 순서로 보면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다. 따라서 아래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창조의 심장에 인간이 자리한다.

11. 알버트 윌터스 『창조, 타락, 구속』, 33.

12. 아기페에서 출판된 쉬운 성경은 창세기 1:2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깨어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뒤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10. 이 점에서 몰트만과 같은 신학자들이 전개하는 법제신론적인 창조신학과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창조신학은 구별된다.



그러나 아직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다. 남자, 즉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같은 날에 창조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줄 것을 명하신다. 고대근동의 문화에 따르면, 이름을 짓는 행동은 일종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방불하다. 달리 말하면, 창조의 맨 마지막에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통치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의 면류관은 인간인 셈이다. 환연하여, 이 광대한 우주의 창조 행위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인간이다. 이것을 시편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준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

는 것이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 83:9).

그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이 있다. 인간의 창조세계의 위상을 선언하신 후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더 진행하셨는데, 비로소 여자를 창조하여 남자에게 이끌어 오신 것이 그것이다.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되, 인간을 위하여 하신 부분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여, 성적인 존재,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성을 내다보시고 이 창조행위를 하신 것을 의미한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

이제 앞에서 던진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된 것 같다. 세계를 창조하셔야 할 필연적인 이유를 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을 사랑해서서 인류를 조성하시려 하셨기 때문이다. 광대한 우주는 지구를 향하여, 지구의 창조진행은 인간을 향하여 서 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가 바로 인간을 사랑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22.13 창조명령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자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울 것을 주문하신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

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 이것을 소위 “창조명령”이라 하며, 윌터스는 이것을 제3의 창조라고 불렀다.¹³ 제1의 창조와 제2의 창조를 통하여 창조된 선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개발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채우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내린 신 것이다.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정원(garden)의 구조를 가진 이 창조세계의 개발이 인간에게 맡겨진다. 창조주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인지와 진실과 거룩의 무한성과 불변성과 영원성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분에게 의존하여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진다. 아마도 그 책임은 삼중적인 구조에서 확실하게 파악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인간, 동료인간을 사랑하는 인간, 피조물의 본래적 은사가 무르익도록 배려하고 도와주는 인간이 그것이다. 이것이 창조의 신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본래적 자리이다. 이 책임을 다할 때,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향유할 수 있었다(창 2:9, 창 3:22-24, 계 22:2).

22.1.4 창조질서(Creation Ordinances)

동시에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질서가 있었다. 헤르만 바빙크(H. Bavinck)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허블과 땅은 처음부터 구별되었다. 모든 것이 그 자신의 속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안에 머문다. 태양과 달과 별들이 그들 고유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식물과 동물과 인간도 각각 구별된 본성을 갖는다. 풍성한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 다양성 안에 또한 가장 뛰어난 통일성이 존재한다. 다양성과 통일성은 하나님 안에 기초를 둔다. 그의 미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각각의 본성 안에서 지탱하시며, 그들을 창조시에 부여된 각각의 능력과 법칙과 일치하도록 인도하고 통치하시며, 만물

13. 알버트 윌터스, 『창조 타락』, 53.

유대회 | 사회 참여를 위한 개혁신학의 세계관적 근거 모색 -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중심으로 - 177

의 지고의 선과 궁극적인 목적이셔서 만물을 그들의 기준과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시다.¹⁴

아브라함 카이퍼도 동일한 이해를 표명하여, 자연계에는 자연법칙을, 식물계에는 식물과 관련된 법칙을, 동물과 관련하여서는 동물과 관련된 법칙을, 인간과 관련하여서는 도덕법 혹은 도덕적 질서(Zedelijke wet/ordinantie)라는 경계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고 주장한다.¹⁵ 이러한 이해를 상속한 것으로 보이는 윌터스는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를 자연의 법과 규범으로 구별한다. 우주와 비인격적인 피조물에게는 자연의 법칙을 적용하는데, 이를테면, 중력의 법칙, 운동의 법칙, 열역학 법칙, 광합성 법칙, 유전 법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그 외 다른 자연과학에서 발견되는 모든 자연법칙을 포함한다. 하지만 인격적인 피조물들에게는 규범을 적용하는데, 부모와 자녀, 인간과 인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것을 결정하는 기준과 능력을 의미한다.¹⁶ 앞 단락과 관련하여 강조하자면, 창조명령은 창조 질서를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질서는 이 땅에서 구속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참여를 이야기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2.1.5 언약의 체결

창조의 과정에서 인간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책임 있게 사랑하시고 그에게 더욱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신다. 물론 창세기 1:3장 사이에는 "언약"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언약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소들¹⁷이 발견

14. H. Bavinck, *Gerformeerde Dogmatiek II* (Kampen: Kok, 1998), 399.

15. C. Veerhof,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15.

16. 알버트 윌터스, 『창조 타락』, 28-30.

17. 그것이 ①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아담, ②언약의 상급: 영생, ③언약의 조건: 순종, ④언약의 형식: 사막, ⑤언약의 주표: 새 언약이다

되기 때문에, 개혁신학은 창조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 언약을 통상적으로 "행위언약(Foedera operum)"¹⁸이라 부르지만, 생명과 사명의 언약, 즉 "생사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언약을 제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영생을 약속하셨으며, 동시에 불순종하면 사망이 정해진다고 확인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언약의 증표는 생명나무였다. 앞서 살폈던 창조의 과정에서도 이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증표가 생명나무라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언약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심사는 인간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것에 있었다. 신약과만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도덕적 구범을 통하여 통치되는 인간에게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이 생명나무라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계시하셨고 또한 인간에게 그 언약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생사의 언약의 중심부는 사랑과 은혜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2.2 타락

아담은 자발적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았고, 따라서 사망을 벌에 처해졌으며 영생을 보증하는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 다(창 3:22-24).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그의 허리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과 아담이 통치해야 했던 피조물이 죄의 공동의 상속자가 된다. 인간의 역할이 삼중적이었던 것처럼, 그 죄가 삼중적인 관계에서 세력을 드러내었다. 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이 그 증거이며, ②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자신을 속이며,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통치하며,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것이 그 증거이며, ③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적대감이, 피조물과 피조물

18. 행위언약이란 말을 쓰는 학자들은 H. Bavinck, A. G. Honig, G. Vos 등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학자들은 H. Hoekema, J. Murray, G. C. Berkouwer 등이다.

사이에 적대감이, 땅이 지주를 받아 기지와 영경귀를 내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인간이 피조물을 향하여, 피조물이 인간을 향하여 자기를 주장하게 된다. 결국, 창조의 아름다움, 즉 살림이 깨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결과이다. 김세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탄은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 곧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항상 충동질합니다(창 3:5).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순종은 인간의 비하이며 속박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온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충동에 넘어가는 순간, 인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며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그의 무한한 자원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됩니다. 더욱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는 것 즉 자신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탄에게 순종하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진리와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할 때, 인간은 거짓과 의파고난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¹⁹

죄로 인하여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며, 더 이상 인간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며, 더 이상 피조물의 "침뎀" 안배자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행위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락이후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를 향한 당신의 주권을 거두지 않으시고 일반은총을 통하여 죄의 파괴적인 피음을 억제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담지한 자기 배성의 공동체를 창조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한층 더 심화시키신다.

19.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서울: 두란노, 2004), 20.

2.2.3 구속

구속은 새 언약을 통하여 그 뿌리를 확고하게 내린다. 예수님 자신이나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체결된다.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화해를 가져올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속이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 그의 피로 그가 대신하고 대표하신 인간의 죄를 덮으시고(expiation)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화해(propitiation)를 가져오신다. 중보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체결된 이 언약을 "은혜언약"이라 부른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용납함으로써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 이 방식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질 수 있는 역사적인 기초가 마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사건은 단지 개인을 위한 사건인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또한 우주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 세상을 자기와 회복하게 하신 것이며(고후 5:19), 만물, 즉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자기와 회복하게 하신 일로 이해한다(골 1:20). 환언하여,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창조세계를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생명이 "개인적으로" 홀리념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안에서 죄의 질서가 주춤거리며, 다시 "창조질서의 회복"이 시작된 것이다.

개혁신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는 창조질서를 뒤로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²⁰ 따라서 구속의 질서는 창조질서 위에 다른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donum superadditum)이 아니라,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달리 말하여, 구속의 질서는 창조질서를 폐

20. "Gratia non tollit naturam sed perficit."라는 개혁신학의 공리는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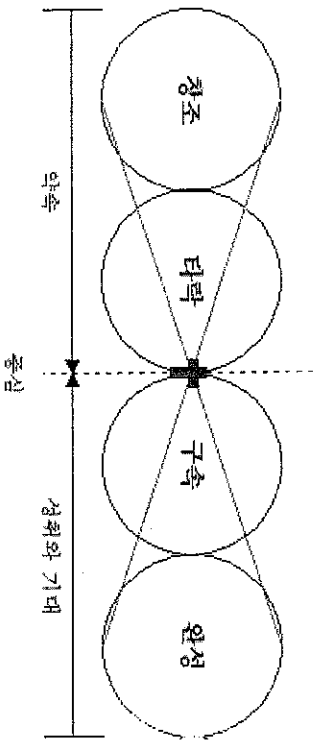
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 창조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의 적용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결혼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은혜는 자연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스며들어 그것을 변화시켜 완성에 이르게 한다는 개혁신학의 공리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성경의 뚜렷한 가르침이기도 하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 안에 죽음과 질병과 부조리를 가져왔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경험하게 되면, 이 관계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관계가 회복된다. 인간만이 아니라 창조질서가 회복된다.

2.2.4 완성

완성(Consummation)은 창조세계의 궁극적인 완성을 의미한다. 죄를 제외하고 창조세계의 어떤 것도 완성된 왕국에서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개혁신학의 입장이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세계는 영광의 세계를 향하여 더욱 개방된다. 영광을 향하여 개방된다는 의미는, 인간에게 맡겨진 제3의 창조행위가 이미 창조질서에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속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구속의 질서에 통합됨으로써 더욱 더 진보하고 발전하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때에 창조세계에 약속되었던 그 온전한 영광이 통합적으로 계시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구속된 창조세계와 인류는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인지와 거룩과 진실에 있어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리고 존립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visio Dei per essentiam)이 아니라, 인간이 다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으로 이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의 무한한 질적인 차이는 제거되지 않는다. 다만

21. 벨직 신앙고백(Confessio Belgica)은 다음과 같이 신앙을 고백한다: "He will burn this old world in fire and flame in order to cleanse it."

인간을 비롯한 창조세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여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조질서는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것이다. 개혁신학의 네 기둥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소위 개혁신학이 창조와 구속을 바라보는 큰 구조이다. 구속을 이해 하는데 있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균형 있게 취함으로써, 복음주의 모델 보다 개혁신학의 모델이 구속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된 그리스도의 왕국의 윤리는 결과적으로 창조 의 윤리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국 윤리의 추상성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혁신학이 담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개혁신학의 사회 참여를 위한 신학적 근거 모색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주의 모델과 개혁신학의 모델을 비교하였는데, 이 비

교의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두 모델 모두 구속(Redemption)을 중심축으로 취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복음주의에 비하여 개혁신학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균형 있게 강조함으로써 창조신학적인 지평을 전체하고 또한 성취한다. 그렇다면, 구속을 강조하여, 구속주의 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생명과 구원이 죄인들에게 나눠지도록 할 뿐 아니라 구속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의 윤리를 말하는 복음주의에 비하여, 창조의 바탕에서 구속을 강조하는 개혁신학이 구속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시키는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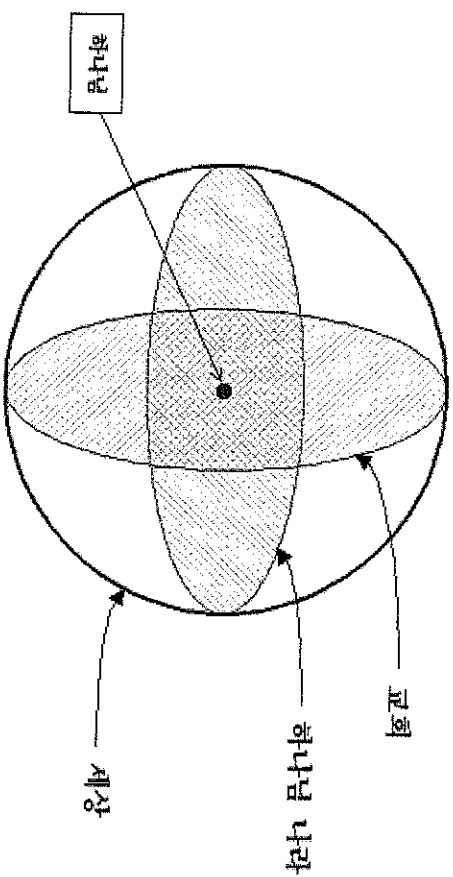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성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마 28:18)고 말씀 하셨다. 창조와 구속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통하여 창조세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가져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즉 구속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즉 우주가 전체로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관 아래 선다. 바로 이런 맥락을 반영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마 28:20)는 말씀이 그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셨다²²는 사실이며,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도 이러한 두 측면을 아우르는 분명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에 참여한 자는 이 세상 그 자체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믿고,

22. 골로새서 3:11에서도 동일한 음향을 들을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세상에 구원과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할 책임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개혁신학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창조와 함께 인간에게 주신 "창조명령",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명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틀에서 확인한 것처럼, 구속이 인간만이 아니라 세계와도 관련된 사건이며, 구속이 창조신학의 윤리, 즉 창조질서(creation ordinances)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구속을 덩부하신 대위임령은 창조신학에 근거하여 주어진 "창조명령"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바르다. 실제로 바울은 구속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언급하면서, 개인적 인 경건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인간과 인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건강한 노사관계도 경건에 속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언급한다(엡 5:18 이하)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비록 신약성경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창조신학의 실천적 적용으로서, 봄이 되어 새싹이 돋아나는 것도 성령의 창조적 사역이라고 파악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시 104)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오늘날 제기되는 환경문제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측면은 구속은 인간론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우주론적인 것이어서,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스며들어 자연을 완성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 구속의 은총은 인간의 사회적인 삶을 회복시킨다. 가톨릭교회의 경우처럼, 은총이 자연 위에 있어서 은총의 위계질서를 형성하여 점차 수도원적 삶으로 물러나는 것도 아니며, 은총이 은총의 영역을 따로 설정하여, 교회와 기독교와 찬양과 말씀 공부 등에만 집중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게토화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은총은 세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스며든다. 소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창조세계에 은총이 스며든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세계 안에서 창조질서를 찾아 그것을 적용하는 데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건전한 삶은 창조세계 전반에서 그 진정한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되, 창조질서라는 분명한 방향을 따라 그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론적이고 인간론적인 구조를 던고 우주론적인 영역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아공 프레토리아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들 지냈으며, 잘 알려진 케이퍼리안(Kuyperian)인 요하네스 헤인즈(J. Heyns)가 그런 그림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 유의할 것이다.²³



23. J. A. Heyns, *Die Kerk*, (Pretoria: N. G. Kerkboekhandel, 1977), 28.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상, 곧 창조세계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속한다. 따라서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세상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 세상을 자기에게 회복하게 하심으로써 죄인을 불려 제도적인 교회를 창조하시고, 동시에 유기적인 교회, 즉 흠어져 삶의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삶을 통하여, 자신의 왕권을 창조세계 안에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제도적인 교회의 예배를 중심하여 드러나고, 동시에 유기적인 교회 구성원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현존한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제도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예배와 종교적인 일을 통하여 구현할 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가 속한 삶의 각각의 영역에서 살아내야 한다. 제도적인 교회는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하며, 유기적인 교회는 일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 자유대학교 설립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 부르지 않은 단 일 평방 센티미터의 공간도 없다."²⁴는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고, 바로 그 주권은 증보자이신 메시아 안에서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²⁵ 따라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삶의 유일한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유기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영역은 다양하여, 실로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다. 예컨대, 신실한 그리스도인 물리학자들이 있다고 하자. 그들이 물리학자들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신을

24. C. Veerhof,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29. "Geen duintbreed is er op heel 't erf van ons menschelijk leven, waarvan de Christus, die aller Souverein is, niet roept: 'Mijn!'"

25. C. Veerhof,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29.

의 연구 영역에서 나타나는 무신론적인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물리학의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유(thought), 즉 창조질서를 발견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리학의 영역에서도 주인임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다한다면, 그 영역에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빛이 동태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 경제, 환경, 교육, 문화, 스포츠, 학문 연구, 여행, 직업적인 소명을 망라하는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해명되고 펼쳐져야 할 곳이다. 카이퍼도 동일한 이해를 표명하여, "교회와 가정과 학문과 예술과 무역과 산업, 즉 사회적 삶의 각각의 영역에 영역주권이 있으며, 이것은 국가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재 없이 하나님의 결정에서 직접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²⁶라는 주장을 하였던 바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처한 그곳에서 그가 하는 고유한 그 일 이 바로 창조세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아들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영역주권이라는 말이 고립된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인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며, 문화를 즐기고, 연필된 학문을 연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은 영역의 고유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영역 각각이 분권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거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위의 도표에서 하나님 나라를 표시하는 그림은 대단히 미세하게 쪼개져서 세상을 의미하는 모든 영역에 표기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해인즈는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는 인격적인 피조물의 영역만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피조물의 영역까지 포괄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신하들, 즉 먼지와 식물

26. C. Veerhof,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31. "er in Kerk en huisgezin, in wetenschap en kunst, in handel en nijverheid, kortom op elk terrein van het maatschappelijk leven, een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bestaat, die door den Staat niet gegund wordt, maar zonder tusschenkomst van den Staat

과 동물과 인간과 천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요, 이 왕권에 대한 신하들의 자발적인 순종 안에 현존한다. 보다 더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의지의 승리이다.²⁷⁾ 이런 이해에 근거하여, 우리가 사회 참여를 말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그의 신하들인 각각의 영역들에 주어진 존재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런 원리들을 공유하는 체 단체들과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말인즉, 식물의 경우, 봄에 파종 하여 여름에 거두도록 의도된 것과, 늦가을에 파종하여 이른 봄에 거두는 것이 태생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것과 같이, 혹은 동물에게 주어진 본능적인 생육방식과 같은 것, 혹은 자연세계에 주어진 중력의 법칙과 같이 이미 주어진 원리를 존중하고, 그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공유하는 사회적 단체들과도 어느 정도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구속은 이러한 일 반적인 진리를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그것을 승인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모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데 더욱 더 효율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은총은 창조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완성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은 교회적인 일, 혹은 소위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국한시켜서는 안 되며, 인간의 거주지인 지구를 포함하여,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으로 그 관심의 외연을 확장하여 창조질서를 찾아 그것을 분명하게 현시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한다.

4 메시아적 인터메조(das messianische Intermezzo)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만 말해서는 서구교회의 전철을 다시 밟아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상을 좇아 회관의 교회가

위에서 설명한 것을 펼쳤으나, 결과적으로 세속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극복하지 못했다.²⁸⁾ 구속은 아직 최종적인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경험한다. 그리스도인에서 이 세상에 뚫고 들어와 역사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아직도 자신의 남은 때에 모든 힘을 다하여 인간을 미혹하는 사탄의 활동이 현저하다. 위르겐 몰트만(J. Moltmann)이 메시아적 인터메조(das messianische Intermezzo)²⁹⁾라 부른 이 기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다. 메시아적 인터메조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현시될 수 있도록, 종말을 선회하지는 성령의 인도를 향하여 자신을 개방해야 한다. 이 긴장의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부단히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단없이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과 능력을 부단히 간구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인을 멸시치 말고 법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한 것이다(살전 5:19-22).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집중하여, 법사에 시련하고 확증하여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 삶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요청되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적인 이해를 통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엡 1:17), 탄식하시는 성령(롬 8:26),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는 성령(롬 8:16)의 인도하심을 늘 의지해야 한다. 메시아적인 인터메조의 기간을 결정짓는 분은 성령이시며, 그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베풀어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개혁신학은 구조에 파묻히는 신학이 아니다. 이 구조 안에서 행동

28. Antonie Wessels, *Secularized Europe, Gospel and Cultures 6* (Geneva: WCC Publication, 1996), 1-7.

29. J. Moltmann,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Ein Beitrag zur messianischen Eschatologie* (München: Kaiser, 1989) 298-299

27. J. A. Heyns, *Die Kerk, 6*. "Die koninkryk is Gods heerskappy oor en die gehoorsame aanvaarding daarvan deur sy onderdane: stof, plant, dier, mens en angeld. Nog korter: die koninkryk is die heerskappy van Christus..."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학이다. 환연하여 개혁신학의 신념체계가 신학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가가 되어야 한다. 개혁신학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어서 부단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호흡처럼 가까이 계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개혁신학의 창조관은 범신론과 달라서, 신이 세계 안에 파묻혀 있지 않기에, 창조주께서 창조세계를 떠나들 수 있다. 동시에 개혁신학의 창조관은 초연신론과 달라서,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인간에게 일임하고 저 멀리에서 뒷집 지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다. 인간과 세상을 자연법칙에 일임하여 그 법칙의 굴레 안에 살도록 그렇게만 결정짓지는 않았다. 오히려 찾아오시며, 섭리하시며, 말씀하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고통을 고통 하신다. 피조물의 편식을 들으시며, 동시에 응답하신다. 따라서 이 막간의 시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은 개혁신학의 구조만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양 교만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을 계약하거나 혹은 배제해서도 안 되며, 동시에 창조의 질서를 폄하하여, 왕국의 윤리로 빠져나가서도 안 될 것이다. 그것은 권터 하이스(Guenther Haas)가 예리하게 지적한 것처럼, 영지주의적인 오류에 빠져드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⁰ 기도하며 경건의 능력을 부단히 추구하는 개혁신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세계에 구원의 능력이 스며들게 하여,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즉 하나님의 살림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는 글

지금까지 우리는 개혁신학의 사회참여를 위한 세계관적인 기반에 대하여 생각해왔다. 복음주의와 달리 개혁신학은 구속을 이해할 때, 창조신학적인 지

평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구속은 곧 창조의 회복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찾아 그것을 대위임령 안에서 파악하고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런 방식으로 인간론적이고 기독교적인 범주를 기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되, 이것을 지나 우주론적인 영역으로 그리스도인의 관심의 외연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 회회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이 사회 참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구속이 그리스도인을 이런 정황속에서 파악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확고한 전체가 신학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구속은 창조 위에 서거나 혹은 창조를 뒤로 물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구속의 관점에서 창조를 파악하고, 특히 창조와 함께 이 세상에 반영되어 있는 현실로서 창조질서에 주목하고, 창조질서에 반영되어 있는 각각의 고유한 영역을 찾아 그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처하지 않은 곳으로 확인하는 것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살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산업과 무역과 스포츠와 여가 활동과 문화적 활동과 정치 활동과 환경문제와 같은 구별된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창조세계 속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진리들이 존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도 1+1=2라는 사실을 비기독교인들과 공유한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합이 3이 되거나 혹은 2.5가 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서 이미 진리로서 확인되어 공유되는 것에 대하여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 문제는 비그리스도인이라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이런 일반적인 진리들이 오용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관적으로 이것이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혹은 구속주와의 관계에서 항상

30. Guenther Haas, "The Significance of Eschatology for Christian Ethics," in *Looking into the Future: Evangelical Studies in Eschatology*, ed. D. W. Baker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1), 338.

해명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있다.

바로 이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사귄이 필연적인 것이 될 것이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사람이 없는 세계관적인 구조는 결과적으로 화석화된 인본주의적 구조로 전락하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문초록

The Foundation for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Yoo, Tae-Wha
Baeseok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have tried to present the foundation for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especially focused upon Reformed theology.

For this, I have compared the Reformed perspective with the evangelical perspective. Through the comparison, I have found out that while evangelical theology approaches to the matter of social responsibility from the Christocentric perspective without the emphasis upon the creation, Reformed theology approaches to the matter from the redemption by Christ Jesus with the concept that redemption is the recapitulation of creation. As a result, Reformed theology has more concrete orientations for the social responsibility than evangelical theology has.

And then I have suggested what is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concept that redemption is the recapitulation of creation. That is the creation ordinances established in the time of creating of the world. In spite of corruption, creation ordinances are still remained, and thus redemption means that creation ordinances must be discovered and kept in every sphere of our life.

In this way, the sovereignty of God the Creator and God the Redeemer is manifested in every sphere of our life, namely, in the Sunday worship as well as in ordinary life. This is the reason why the church must work out the responsibility for the world.

Key Words: Reformed theology, Social responsibility, Redemption, creational ordinances, sphere sovereignty.